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자)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12 월 ]



**복음화 지향 :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주일입니다.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닦아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1-6ㄴ.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이사35,4ㄴ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2독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픈 이들을 낫게 하실 뿐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봅시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기다림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사야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광야는 비옥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슬픈 땅입니다. 그러한 광야도 기뻐하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기쁨은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기뻐하라고 초대하시며 참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십니다.

제 2 독서에서는 언제나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시지만, 결정적으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은 기쁨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사야가 전한 표징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에서 완성되지 못한 표징을 제시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복음은 바로 가난한 이들, 곧 기쁨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군중이 요한의 역할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 그분의 인격에 충실하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표지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이고,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구원자, 참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준비한 가장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큼니다.

I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복음 필사 I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을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과  
아기 세례자 요한'  
라파엘 작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마태 11,11).

---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자선주일의 의미와 유래**

자선주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선을 실천하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지난 1984년부터 매년 대림 3 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자선」이란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구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나탄」으로, 이는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대가 없이 선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족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이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리를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레위 25, 35~38). 또 희랍어로는 「동정」을 뜻하던 「엘레에모쉬네」가 자선의 의미로 쓰였는데, 자비로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마태 6, 1~3 루가 11, 41)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자선의 방법이라면 지극히 작은 형제들 즉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병든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노인과 장애인들, 버림받은 아이들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가지 애덕을 실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선 행위는 인간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베풀어지는 손길이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제한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2 고린 9, 7)라는 말씀처럼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39 회 자선 주일 담화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경춘 주교님께서서는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해 가는 한 해였지만, 아직도 사회의 구석구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시로 지난 여름 60 대 어머니와 40 대 두 딸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며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드시면서 이분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았으며 그 분들의 고통,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담화문을 통해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 빈곤 노인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며 폭염, 폭우, 가뭄과 혹한 등 극단적인 기후 환경의 위험성도 상기 시키셨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후원: <https://www.caritas.or.kr/support/counsel/>

**2022년 성탄 판공성사**

이번 판공성사가 교우분들께 은총의 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사 순번(권고): (11 일) 마르코반→(18 일)마태오반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는 방법 - 이미지 클릭]

**청년캠프(AMICUS CAMP)**

일시: 12월 26일(월)~ 28일(수)  
문의: 김예린 크리스티나 (☎ 0433 934 686)  
※ 캠프 참가비 일부 지원

**2023년 공동체 달력**

성전 입구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선 바구니(Hampers) 포장 및 전달 봉사**

St Vincent de Paul Aranda Conference 에서 진행되는 자선 바구니 포장 및 전달에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포장]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라나 센터 [전달]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문의] Mary Williams (marywilliams@grapevine.com.au) 또는 Kate Hourigan (Houro56@hotmail.com)

**대림시기 우크라이나 성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 성금에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전입구에 준비된 성금봉투를 **12월 25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림 제 3 주일 (자선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㉔**  
 외식할 때 못 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㉙**  
 차에 불필요한 짐을 싣고 다니지 않기  
 → 4.67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TV 가톨릭콘텐츠모든것  
 자선주일 담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유경춘  
 주교는 자선주일 담화

성경과의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16강]  
 구약시대의 성금요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레위기 2부 | 8-16 장

CPBC 라디오

시노달리타스 의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1 월 27 일	성인 25 아이 12	12 월 4 일	성인 44 아이 16
-----------	-------------	----------	-------------

□ 우리들의 정성 (12 월 3 일(토)~12 월 10 일(금))

권묘순	김요한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진윤기		
교무금 \$780 (14 가정), 봉헌금 \$31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2 월 11 일, 대림 제 3 주일(자선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12 월 18 일, 대림 제 4 주일) 주정자 루치아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1 일) 루카반 → (18 일) 마르코반 → (25 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25 일) 공동체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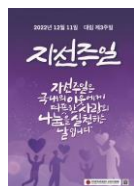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영은 루치아(마르코), 주정자 루치아(루카)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말씀 학교' 홍보 차 방문하신 시드니 한인성당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 자선주일 담화문

<https://cbck.or.kr/Notice/20221110>



♡ 대림시기 은총을 청하는 기도

[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s\\_view.asp?num=116476&id=1838482&ref=93101&menu=4770](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s_view.asp?num=116476&id=1838482&ref=93101&menu=4770)

